기독미디어아카데미 종강예배 졸업생 답사

중기과정 5기를 마치며

박혜경

다크서클, 수면부족, 중국집 철가방 같은 카메라 가방 들고 뛰기, 끼니 거르기 또는 아무거나 되는대로 끼니 때우기,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기,... 지난 4개월간의 제 생활용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개월은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독미디어아카데미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군교회에서 형제들에게 영상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싶은 것과 선교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의 보고 영상을 기록 수준의 영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의 지원동기를 다 이루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제가 절대로 손델 수 없을 것 같은 영역에 두 발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또 저의 지원동기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과제와 시사문화 QT는 참 마음을 어렵게 하는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과제를 통해 제가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을 말 대신 영상과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한 고민들을 해보았고, 시사문화 QT를 통해 그동안 세상을 향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속 후련하게 쏟아냈습니다. 영상 과제야 말로 표현해 무엇하겠습니까? 장유진, 유지은 PD님과 박 간사님의 노력으로 도저히 영상이라 할 수 없는 걸 영상으로 둔갑시키는 마술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5기생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은혜는 따로 있습니다. 기독미디어아카데미를 위해 일하시는 교수님과 강사님들의 수고에 대한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당신들의 세계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기독교세계관을 가르치고, 미디어를 가르치는 삶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영상캠프며 졸업작품이며 몇날 며칠을 망가지도록 밤을 세워가며 함께 하셨던 PD님들... 그 분들이 만드신 어떤 영상보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다른 분야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교수님들과 강사님의 삶의 모습을 보며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느끼는 동지애와 배움을 얻은 제자로서 느끼는 스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난 4개월을 특별한 은혜와 기적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